

< 요약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1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 4,742억 달러
 - '15년중 유럽 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약·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 및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M&A 투자 활성화로 '12년 이후 세계 FDI 규모 증가세 지속
 - 다만, 역대 최고치인 2007년 수준(2조 1,652억 달러)에는 미달
 - * 세계 FDI 추이(달러) : ('13년) 13,016억 → ('14년) 13,185억 → ('15년) 14,742억
 - 지역별로는 선진국 간 M&A가 활발히 이루어져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72%('14년 61%)로 증가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투자비중은 감소
 - * 투자비중 : '14년(선진국 61%, 개도국 34%) → '15년(선진국 72%, 개도국 26%)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선진국) 선진국간 M&A 투자 활성화 등으로 '15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 증가(33%)한 1조 652억 달러 기록
 -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의 투자가 큰 폭 증가하여 투자 유출액 1조 달러 상회
 - * 선진국 투자액(달러) : ('13년) 8,259억 → ('14년) 8,007억 → ('15년) 10,652억
- (개발도상국) 홍콩,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의 투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5% 감소한 3,779억 달러 기록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5개국만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되는 등 '15년도 개발도상국의 투자비중은 '11년 수준(24%)으로 하락한 26%를 차지
 - * 개도국 투자비중 추이 : ('13년) 31.2% → ('14년) 33.8% → ('15년) 25.6%

□ (체제전환국*) 저유가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에 따른 러시아의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15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311억 달러를 기록

*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동남부 유럽국가 및 CIS 국가 등이 포함됨

□ (주요국) '15년 최다 투자유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

* 투자액(달러) : ① 미국 3,000억 ② 일본 1,286억 ③ 중국 1,276억 ④ 네덜란드 1,134억 ⑤ 아일랜드 1,016억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미국, 유럽(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지역에 대한 대규모 M&A 투자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84%)한 9,625억 달러를 기록

○ 미국은 조세회피(Tax Inversion)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유입이 큰 폭 증가(256%)한 3,79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유럽지역도 대규모 M&A 증가로 5,036억 달러가 유입

○ 반면, 일본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3억 달러를 시현, 최근 5년간 투자 유입이 정체

□ (개발도상국)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년에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7,6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아시아 지역 유입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407억 달러를 기록하며 개발도상국 투자유입의 대부분(71%)을 차지

□ (체제전환국)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시장 침체 등에 따른 주요국(러시아 등)들의 투자 유입이 급감하여 전년 대비 38% 감소한 350억 달러 기록

□ (주요국) '15년 최다 투자유입국은 미국, 홍콩, 중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순

* 투자액(달러) : ①미국 3,799억 ②홍콩 1,749억 ③중국 1,356억 ④아일랜드 1,005억 ⑤ 네덜란드 726억

2. 투자형태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 황

□ 국경간 M&A 투자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 증가

- '15년 그린필드 투자액은 전년(7,060억 달러) 대비 8.5% 증가한 7,657억 달러, M&A 투자는 전년(4,325억 달러) 대비 66.8% 증가한 7,215억 달러를 기록
- 투자건수의 경우,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15,022건) 대비 4.3% 감소한 14,381건, M&A 투자는 전년(9,944건) 대비 1.0% 증가한 10,044건을 기록

(2) 지역별 동향

□ 전 세계적으로 M&A 투자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54.7%), 개발도상국(31.0%), 체제전환국(22.1%) 순으로 지역별 전체 투자 중 M&A 방식의 투자비중이 높음.

- 특히, 선진국은 '15년 중 M&A 투자비중이 전년 대비 20.2%p 급증하여, M&A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

(3) 업종별 동향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가, M&A 투자의 경우는 제조업·서비스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차 산업) '11년 이후 1차 산업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1차 산업의 투자금액은 그린필드(350억 달러) 및 M&A(27억 달러) 투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5.8%, 79.0% 감소
-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소폭(1.5%) 증가한 3,22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M&A(3,657억 달러) 투자는 전년 대비 83.6% 증가한 3,657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업) 그린필드(4,082억 달러) 및 M&A(3,530억 달러)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7.7%, 60.3% 증가

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규모) '15년 중 해외투자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76억 달러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4년 2.1%에서 '15년 1.9%로, 투자규모 기준 국가순위는 '14년 14위에서 '15년 16위로 소폭 하락
- (지역별) 우리나라는 총 투자액 중 개발도상국에 55%, 선진국에 44% 투자하고 있어, 세계평균(선진국 55%, 개발도상국 4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음.
- (국가별) 우리나라의 '15년도 투자대상 상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앞 투자비중은 55.9%로, 세계 전체의 상위 5개국(미국, 홍콩, 중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투자비중(49.0%) 대비 투자집중도가 높은 수준임.
- (업종별) '15년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60.3%로, 부동산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중
 - * 서비스업 투자비중 : ('11년) 37.1% → ('12년) 42.0% → ('13년) 47.2% → ('14년) 52.9% → ('15년) 60.3%
- (투자형태별) 우리나라는 '15년 중 그린필드형 74%, M&A형 26% 비중으로 투자하였으며, 세계평균(그린필드형 51%, M&A형 49%) 대비 그린필드형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III.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총 규모) UNCTAD에서는 '16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경기침체 지속,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신흥국의 부채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7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16년 중 선진국, 아시아, 중남미에 대한 투자유입액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아프리카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유입액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농업, 식음료업 및 사회 인프라 관련 유틸리티 부문을 투자유망산업으로 제시
- (국가별) '16~'18년 중 주요 투자유출국은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주요 투자유입국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독일 순으로 예상

IV. 시사점

- 세계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린필드형 투자 뿐만 아니라 현지시장 진출·선진기술 확보 목적의 M&A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투자지역에서도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개도국 중심의 투자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 지역·업종 다변화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 활성화로 고용창출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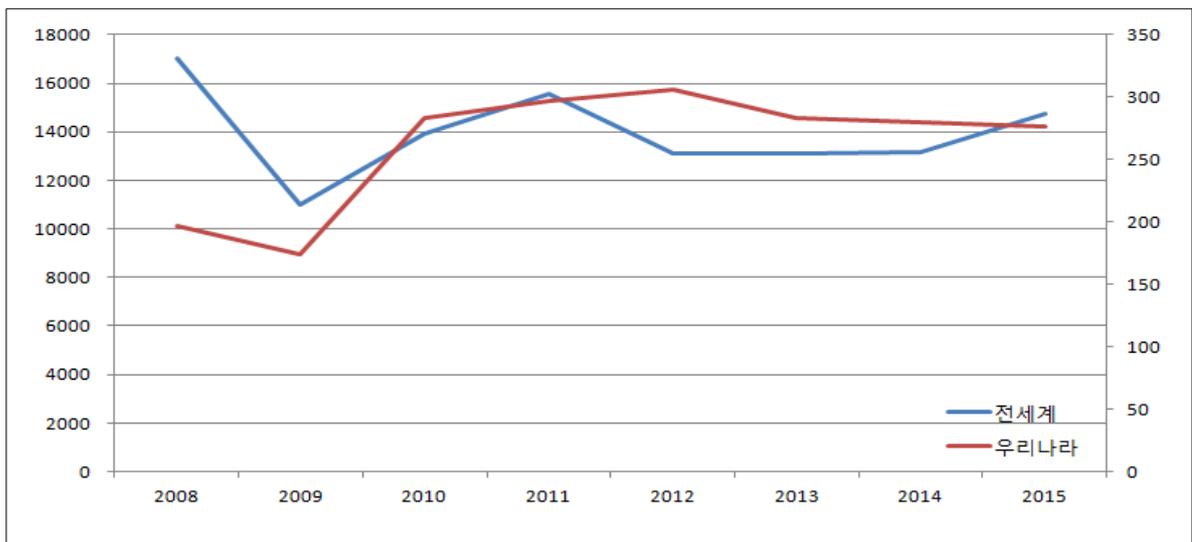
머리말

□ 작성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1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UNCTAD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리포트 2016¹⁾」에 따르면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7년 최고치(2.16조 달러)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15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7조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해왔으며 '12년에는 306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최초로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5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276억 달러를 기록

세계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1) 세계투자리포트(World Investment Report 2016)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분석결과를 발표

- 한편,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은 '09년 1.6%에서 '15년 1.9%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순위도 '15년 기준 세계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동향을 지역별, 업종별, 투자형태별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본 보고서 및 분석자료 해석시 유의점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지칭함.
- 「세계투자리포트 2016」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 대해 186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해서는 216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²⁾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신고액의 합계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UNCTAD	297	306	284	280	276
수출입은행	291	285	302	270	272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1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 4,742억 달러 기록
 -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 중심의 제조업 M&A 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다만, 역대 최고치인 2007년 수준(2조 1,652억 달러)에는 큰 폭 미달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유출액 기준)

(억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투자액	13,919	15,576	13,088	13,106	13,185	14,742	11.8%

- '1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및 유입액 모두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및 유입액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대부분 감소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

구분	유출액				유입액			
	2013	2014	2015	비중	2013	2014	2015	비중
선진국	8,259	8,007	10,652	72.3	6,803	5,220	9,625	54.6
개발도상국	4,089	4,456	3,779	25.6	6,624	6,985	7,647	43.4
체제전환국	758	722	311	2.1	845	565	350	2.0
합계	13,106	13,185	14,742	100	14,271	12,770	17,622	100

- (선진국)³⁾ 유출·유입액 모두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15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유출·유입액이 모두 확대되어 '15년 선진국의 유출·유입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투자비중(유출) : ('13년) 63.0% → ('14년) 60.7% → ('15년) 72.3%

3) WIR에서는 EU 28개국, 비EU 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지브롤터), 캐나다, 미국,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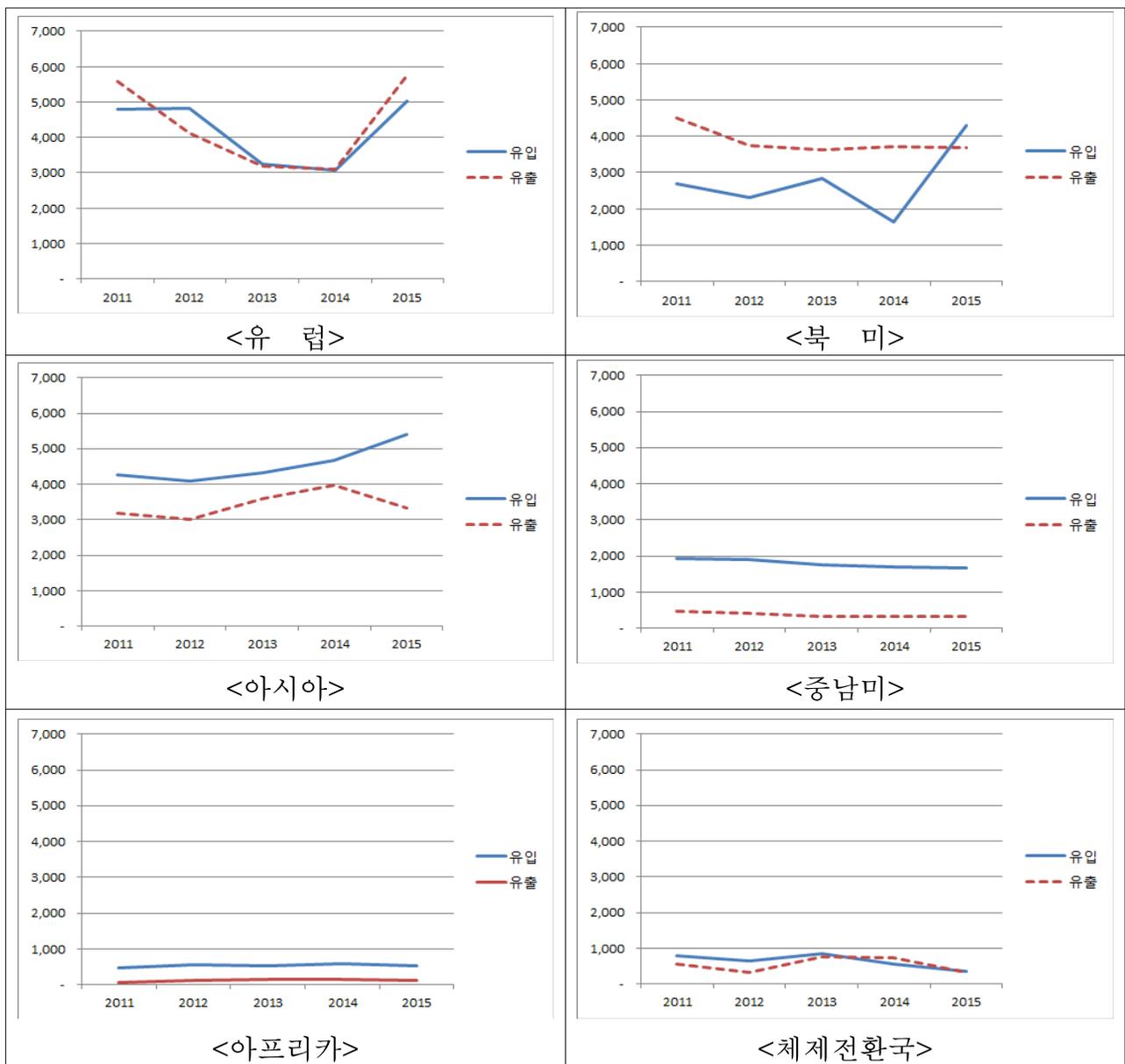
- (개발도상국)⁴⁾ 홍콩, 인도 등의 투자 감소로 유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유입액은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입 증가로 전년 대비 9% 증가

* 투자비중(유출) : ('13년) 31.2% → ('14년) 33.8% → ('15년) 25.6%

- (체제전환국)⁵⁾ 원자재가격 하락, 내수시장 침체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유출액 및 유입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57%, 38% 감소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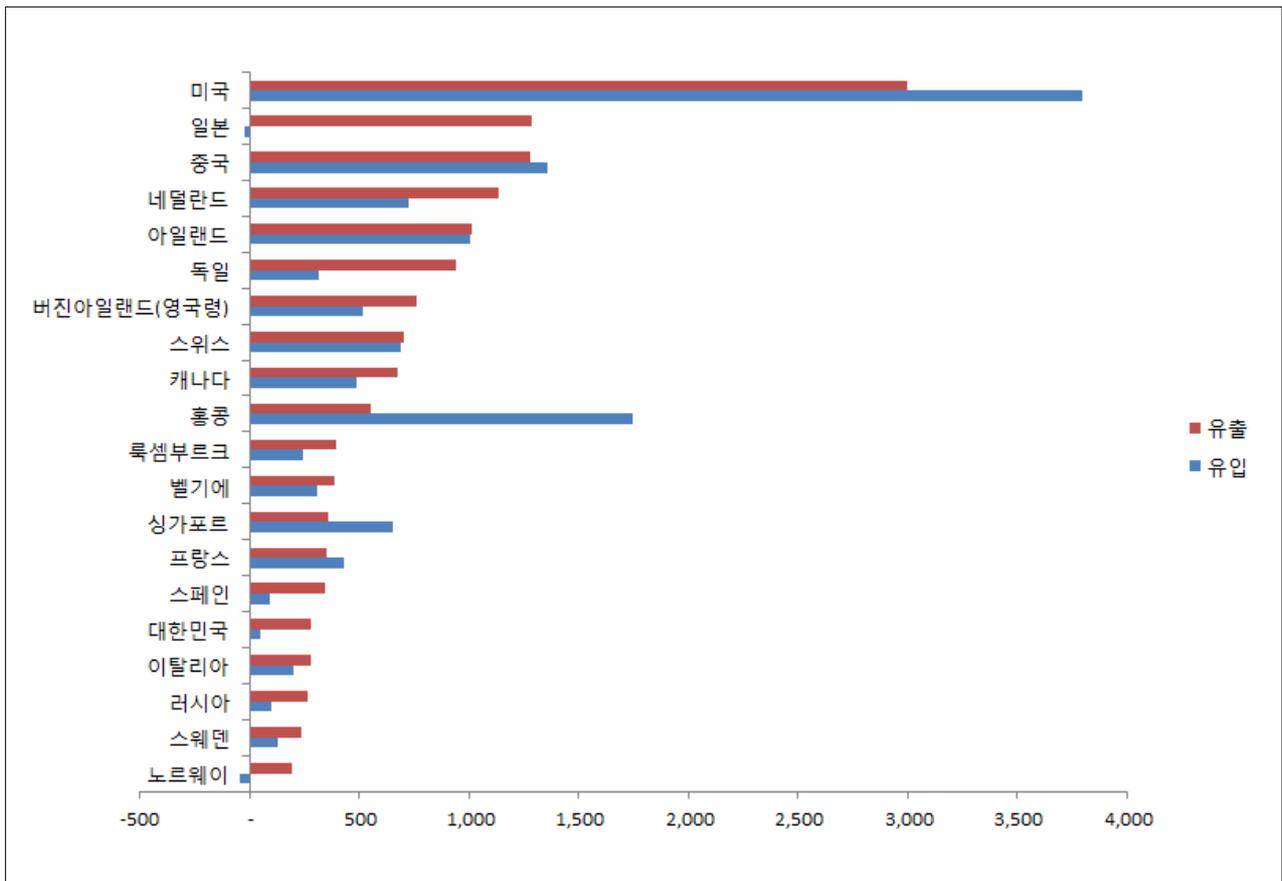


4)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

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조지아, 알바니아, 코소보, CIS 11개국(러시아 포함)을 지칭

'15년도 해외직접투자 상위 20대(유출액 기준) 국가의 유출입액

(억 달러)



UNCTAD FDI 통계의 경유 자본(transit FDI) 처리

□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 및 SPE(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경유자본으로 인한 투자 금액의 이중집계, 투자흐름 왜곡 등의 현상이 발생

* 역외금융센터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국가들로서, 금융·외환 등의 거래에 대해 조세 등의 규제를 면제·축소해 줌으로써 비거주자간 금융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칭

○ 이에, UNCTAD FDI 통계에서는 역외금융센터 및 SPE 관련 수치를 제거한 통계수치 사용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① 선진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07년 최대 유출액(1.8조 달러) 기록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14년까지 투자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15년에는 국경간 M&A의 급격한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1년 이후 4년만에 1조 달러를 상회

최근 5년간 유출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선진국	11,280	9,178	8,259	8,007	10,652
북미	4,487	3,741	3,628	3,722	3,672
유럽	5,587	4,114	3,197	3,110	5,763
기타	1,206	1,323	1,434	1,175	1,217

- 유럽 및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선진국 38개국 중 총 20개 국가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진국의 총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652억 달러를 기록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가명
1,000억 달러 초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독일, 스위스, 캐나다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 지역별 동향

- (북미) 미국의 해외투자 부진 영향으로 '15년도 유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672억 달러를 기록

- (미국) 전년 대비 5% 감소한 3,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대 투자유출국 지위를 유지

* 투자액 추이(달러) : ('13년) 3,079억 → ('14년) 3,165억 → ('15년) 3,000억

○ (유럽)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10년 이후부터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15년 유출액은 제약·화학업종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M&A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5,763억 달러를 기록

-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 스위스가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15년도 주요 M&A 딜>

① Actavis(아일랜드)의 Allergan(미국) 인수(약 680억 달러)

② Merck AG(독일)의 Sigma(미국) 인수(약 170억 달러)

③ Novartis(스위스)의 the Oncology Business of GlaxoSmithKline PLC(미국) 인수 (약 160억 달러)

○ (기타 국가) 일본, 이스라엘의 투자확대로 전년 대비 4% 상승한 1,218억 달러 기록

- (일본) 일본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출액을 기록 중이며, '15년도 유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87억 달러로, 세계 2위 투자유출국의 지위를 차지

* 투자액 추이(달러) : ('13년) 1,357억 → ('14년) 1,136억 → ('15년) 1,287억

②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개발도상국 134개국 중 42개국에서만 투자가 증가하는 등 '15년 유출액은 3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5% 감소한 3,779억 달러를 기록

최근 5년간 유출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발도상국	3,739	3,578	4,089	4,456	3,779
아시아	3,186	3,024	3,589	3,976	3,318
중남미	483	415	323	314	330
아프리카	61	124	155	152	113
기 타	9	15	22	14	18

- 중국,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5개국만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 가 명
1,000억 달러 초과	중국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버진아일랜드(영국령), 홍콩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싱가포르, 대한민국, 칠레, 대만

□ 지역별 동향

- (아시아 동향) '14년도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던 아시아지역은 홍콩 등 아시아계 다국적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3,318억 달러 기록

- (동아시아)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등 주요 투자국의 투자 감소로 '15년 유출액은 전년 대비 22% 하락한 2,261억 달러를 기록

- (중국) '15년 유출액은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 투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4% 증가한 1,276억 달러를 시현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전년도에 이어 세계 3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

- * ① Haier(중국)그룹의 GE가전사업부(미국) 인수(약 54억 달러)
- ② ChemChina(중국)의 Pirelli Peci.Mi(이탈리아) 인수(약 70억 유로) 등

** 투자액 추이(달러) : ('13년) 1,078억 → ('14년) 1,231억 → ('15년) 1,276억

- (홍콩) '14년 다국적기업의 M&A 투자 활성화로 역대 최고치인 1,7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유출액은 전년 대비 56% 급감한 551억 달러를 시현하며, '14년 세계 2위의 투자유출국에서 '15년 10위로 8단계 하락

* 투자액 추이(달러) : ('13년) 810억 → ('14년) 1,251억 → ('15년) 551억

- (한국) '15년 유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삼성 등 주요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저소득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액 추이(달러) : ('13년) 284억 → ('14년) 280억 → ('15년) 276억

- (남아시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투자국인 인도의 투자감소 등에 따라 '15년 유출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78억 달러를 기록
- (동남아시아) 주투자국인 싱가포르(355억 달러)의 투자 감소(△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667억 달러를 시현
- (중남미)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투자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5%) 증가한 330억 달러 시현
- (아프리카) 원자재 가격 하락, 주요 무역국과의 교역량 감소 및 통화가치 약세 등에 따른 주요 투자국(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113억 달러를 기록

③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루블화 가치 하락 및 저유가 지속 등에 따라 주투자자인 러시아의 투자 감소(△59%)로 인해 '15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311억 달러를 기록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① 선진국의 투자유입 동향

- (투자액) 선진국 경기회복, 대규모 M&A 투자 활성화 등으로 '15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9,625억 달러 기록
- 세계 전체 유입액 중 선진국 비중 또한 '14년 41%에서 '15년 55%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 비중(43%)을 추월

최근 5년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선진국	8,174	7,874	6,803	5,220	9,625
유럽	4,781	4,832	3,234	3,060	5,036
북미	2,695	2,315	2,833	1,651	4,285
기타	698	727	736	509	304
세계전체 대비 선진국 비중	52%	52%	48%	41%	55%

□ 지역별 동향

- (유럽)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M&A 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5% 증가한 5,0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전체 유입액 중 29%의 비중을 차지
-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조세회피*(Tax Inversion) 및 기업 계열사간 지분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 국경간 M&A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 대비 유입액이 크게 증가
 - *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사 해외이전 등
- (일본) 유럽계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 등으로 전년(21억 달러) 대비 마이너스 전환한 △23억 달러 시현

②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입 동향

- (투자액) '15년 개도국 앞 투자유입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7,647억 달러를 기록하며, '1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중
- 세계 전체 유입액 대비 비중의 경우 '15년 중 선진국 앞 유입액이 급증함에 따라 개도국 비중은 전년 대비 11%p 감소한 43% 기록

최근 5년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발도상국	6,701	6,588	6,624	6,985	7,647
아시아	4,267	4,096	4,314	4,679	5,407
중남미	1,933	1,905	1,760	1,703	1,676
아프리카	478	552	522	583	541
기 타	23	35	28	20	23
세계전체 대비 개도국 비중	43%	44%	46%	54%	43%

□ 지역별 동향

- (아시아)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비교적 고소득 국가에 대한 유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15년 유입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

- (동아시아) 중국 및 홍콩 등 지역에 대한 유입액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25% 증가한 3,221억 달러 기록
- (중국 및 홍콩)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입 증가로 인해 중국 및 홍콩의 '15년 유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6%, 53% 증가한 1,356억 달러 및 1,7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3위와 2위의 투자유입국 지위를 차지
- (한국) Tesco(영국)의 BMK Partners(한국) 앞 한국계열사 매각(60억 달러)에 따른 투자액 회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50억 달러 기록
-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 대한 투자유입 증가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505억 달러를 기록
-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은 유입액이 증가하였으나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등의 투자 유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유입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57억 달러를 기록
- (중남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1,676억 달러 유입
 - (중미) 자동차 제조업 투자 증가 및 국경간 M&A 투자 확대 등으로 멕시코 앞 투자 유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18%)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14% 증가한 419억 달러를 시현
 - (남미)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15년 유입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209억 달러를 기록. 한편, 주요 투자유입국인 브라질의 경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인프라사업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646억 달러를 기록
- (아프리카) 자원의존도가 높은 사하라 이남(콩고, 나이지리아 등) 지역 앞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541억 달러 기록

③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입 동향

- (투자액)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주요 투자유입국인 러시아(Δ 66%) 및 카자흐스탄(Δ 52%) 앞 유입액이 급감하면서 '15년 유입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350억 달러를 기록

2. 투자형태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 황

□ '15년에는 그린필드 투자액과 M&A⁶⁾ 투자액⁷⁾ 모두 증가

- 그린필드 투자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7,6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M&A 투자액은 선진국의 대규모 투자 증가⁸⁾에 힘입어 전년 대비 66.8% 증가한 7,215억 달러를 시현함.

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유출액 기준)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그린필드	8,653	6,310	8,308	7,060	7,657	8.5%
M&A	5,534	3,282	2,625	4,325	7,215	66.8%
합 계	14,187	9,592	10,933	11,385	14,872	30.6%

-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중 M&A 투자 비중*은 '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M&A 투자비중 추이 : ('13년) 24.0% → ('14년) 38.0% → ('15년) 48.5%

(2) 지역별 동향

□ '15년 지역별 전체 투자액 중 M&A 투자금액의 비중은 선진국(54.7%), 개발도상국(31.0%), 체제전환국(22.1%)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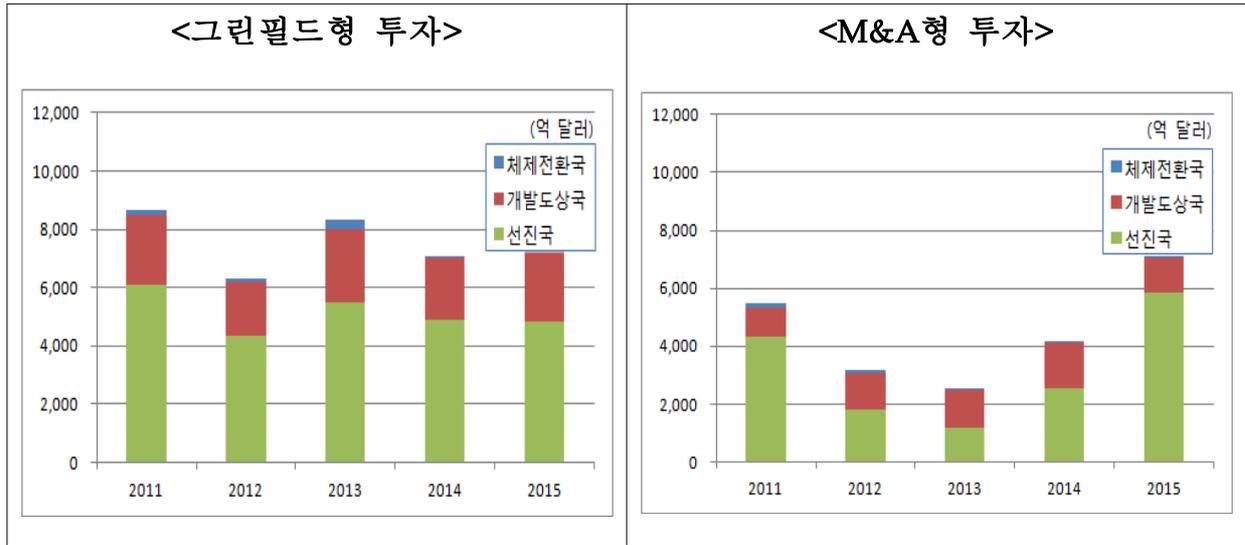
- 선진국 M&A 투자비중의 경우 의약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34.5%) 대비 20.2%p 증가한 반면, 개발도상국 M&A 투자비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 회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42.3%) 대비 11.3%p 감소

6) 각국내 M&A를 제외한 국경간 M&A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7) 대외공시된 총 예상투자액으로 미공시 투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당해연도 송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8) 아일랜드 제약기업 Actavis PLC의 미국 Allergan 인수(684억 달러) 등 '15년 10억불 이상의 대규모 M&A 투자 230건 중 181건(78.7%), 금액 기준으로는 8,411억 달러 중 6,759억 달러(80.4%)가 선진국의 M&A 투자였음.

투자형태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구성 추이



- (그린필드 투자) '15년 중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1,159억 달러), 중국(598억 달러), 일본(564억 달러) 3개국임.

지역별 그린필드 투자금액 현황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선진국	6,072	4,329	5,472	4,873	4,856	△0.3%
개발도상국	2,446	1,883	2,519	2,128	2,648	24.4%
체제전환국	135	98	317	59	153	159.3%
합 계	8,653	6,310	8,308	7,060	7,657	8.5%

-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681억 달러), 인도(634억 달러), 중국(594억 달러), 영국(570억 달러) 4개국으로, 對인도 투자 유입이 전년 (255억 달러) 대비 큰 폭(148.8%)으로 증가
- (M&A 투자) '15년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1,200억 달러), 아일랜드(975억 달러), 캐나다(878억 달러) 및 일본(504억 달러) 등 4개국이며,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821.5%, 84.7%의 증가세 시현

지역별 M&A 투자금액 현황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선진국	4,319	1,839	1,207	2,569	5,859	128%
개발도상국	1,013	1,242	1,278	1,560	1,191	△23.7%
체제전환국	132	92	30	16	45	181.2%
합 계	5,534	3,282	2,625	4,325	7,215	66.8%

-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2,987억 달러)과 영국(710억 달러)임.

(3) 업종별 동향

- (그린필드 투자) 전기·가스·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7.7% 증가하면서 53.3%의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
- (M&A 투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서비스업을 제치고 50.7%의 투자 비중을 차지

'15년 투자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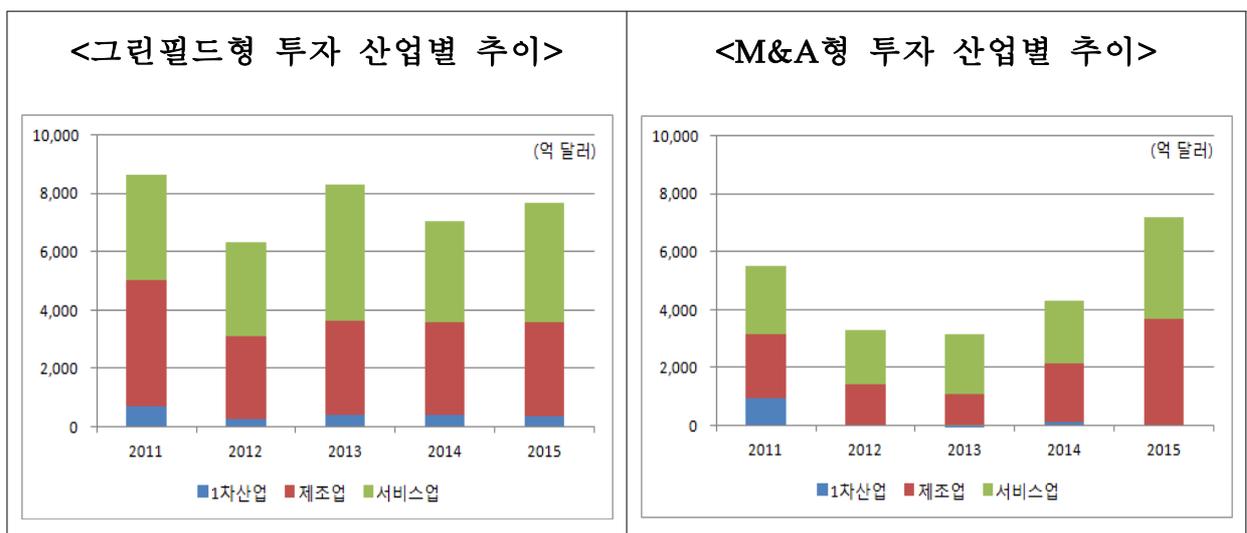
(억 달러, %)

구 분	그린필드 투자			M&A 투자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금액	350	3,225	4,082	27	3,657	3,530
(비 중)	4.6%	42.1%	53.3%	0.4%	50.7%	48.9%
(증가율)	△15.8%	1.5%	17.7%	△79.0%	83.6%	60.3%
투자건수	65	7,065	7,251	324	2,222	7,498
(비 중)	0.5%	49.1%	50.4%	3.2%	22.1%	74.7%
(증가율)	8.3%	△2.8%	△5.7%	△27.2%	2.4%	2.3%

□ 세부 업종별 동향

- (1차 산업) '11년 이후 1차 산업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5년에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1차 산업 분야 기업들의 이익 감소 등으로 인하여 광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투자금액은 그린필드(350억 달러) 및 M&A(27억 달러) 투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5.8%, 79.0% 감소
- (제조업) 그린필드(3,225억 달러) 및 M&A(3,657억 달러)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5%, 83.6%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M&A 투자금액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전자제품, 화학물질, 1차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M&A 투자의 경우 의약품, 전기장비, 비금속광물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
- (서비스업) 그린필드(4,082억 달러) 및 M&A(3,530억 달러)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7.7%, 60.3% 증가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M&A 투자는 건설 및 금융업 부문의 투자가 크게 증가

투자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우리나라의 '15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76억 달러를 기록⁹⁾
- 우리나라 투자 유출액의 세계 전체기준 순위(16위) 및 비중(1.9%)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전체 유출액 대비 비중은 전년 (6.3%) 대비 1%p 상승한 7.3%를 기록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투 자 액	283	297	306	284	280	276
증 가 율	62.2%	5.0%	3.1%	△7.4%	-1.1%	△1.4%
세 계 비 중	2.0%	1.9%	2.3%	2.2%	2.1%	1.9%
개발도상국 비중	7.9%	7.9%	8.6%	6.9%	6.3%	7.3%
세 계 순 위	17	18	12	14	14	16

- (투자유입) 우리나라의 '15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93억 달러) 대비 45.6% 감소한 50억 달러를 기록¹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억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 입 액	95	98	95	128	93	50
증 가 율	5.3%	2.9%	△2.8%	34.4%	△27.4%	△45.6%
세 계 비 중	0.7%	0.6%	0.6%	0.9%	0.7%	0.3%
개발도상국 비중	1.5%	1.5%	1.4%	1.9%	1.3%	0.7%
세 계 순 위	30	36	34	25	30	43

- 9) '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금액은 UNCTAD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 등을 반영한 금액임.
- 10) 투자 회수금 등을 반영한 순투자금액으로 산업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송금신고액 기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UNCTAD 통계와 산업자원부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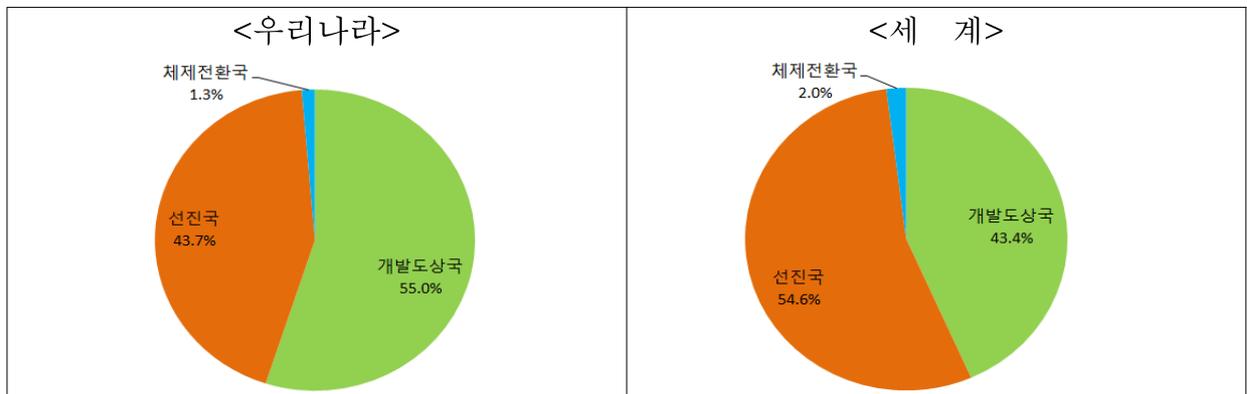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UNCTAD	98	95	128	93	50
산업자원부	66	107	99	121	160

□ (지역별 구성¹¹⁾) '15년 중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55.0%)은 세계 평균(43.4%) 대비 11.6%p 높으며, 선진국(43.7%) 및 체제전환국(1.3%) 앞 투자 비중은 세계 평균(각각 54.6%, 2.0%) 대비 낮게 나타났음.

○ '15년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비중은 선진국 43.7%, 개발도상국 55.0%, 체제전환국 1.3%로, 전년과 비교할 때 선진국 및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은 증가하였음.

- * 선진국 앞 투자비중 : ('14) 47.1% → ('15) 43.7%
-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 : ('14) 51.5% → ('15) 55.0%
-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 : ('14) 1.4% → ('15) 1.3%

‘15년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역별 투자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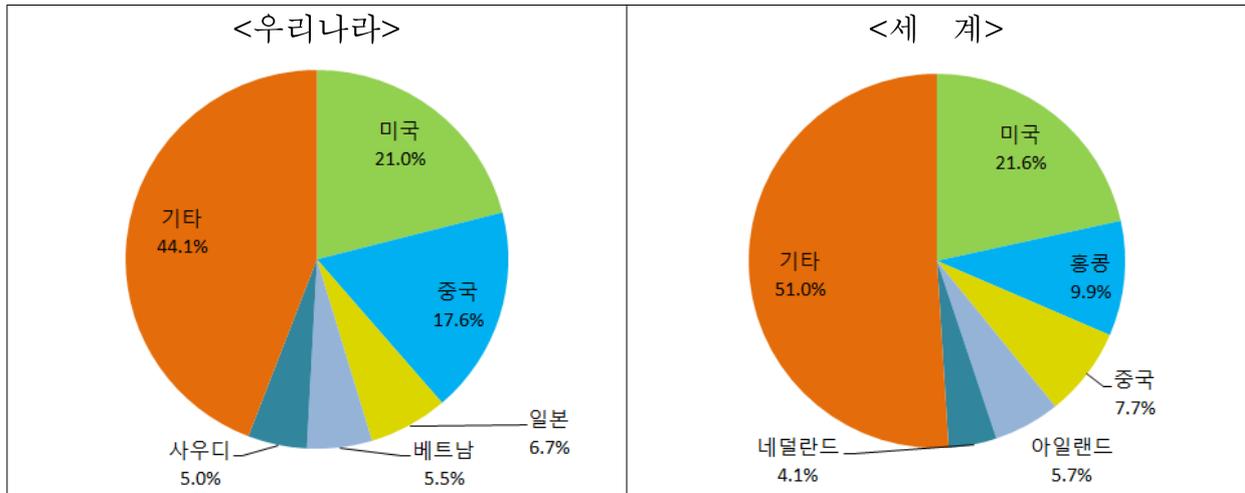


□ (국별 구성) '15년 우리나라의 상위 5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세계 전체 기준 상위 5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홍콩, 중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였음.

○ 우리나라의 상위 5개 투자국 앞 투자비중은 55.9%로 전년(52.4%)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세계 전체 기준 투자비중(49.0%)과 비교할 때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높은 편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및 일본 앞 투자비중(24.3%)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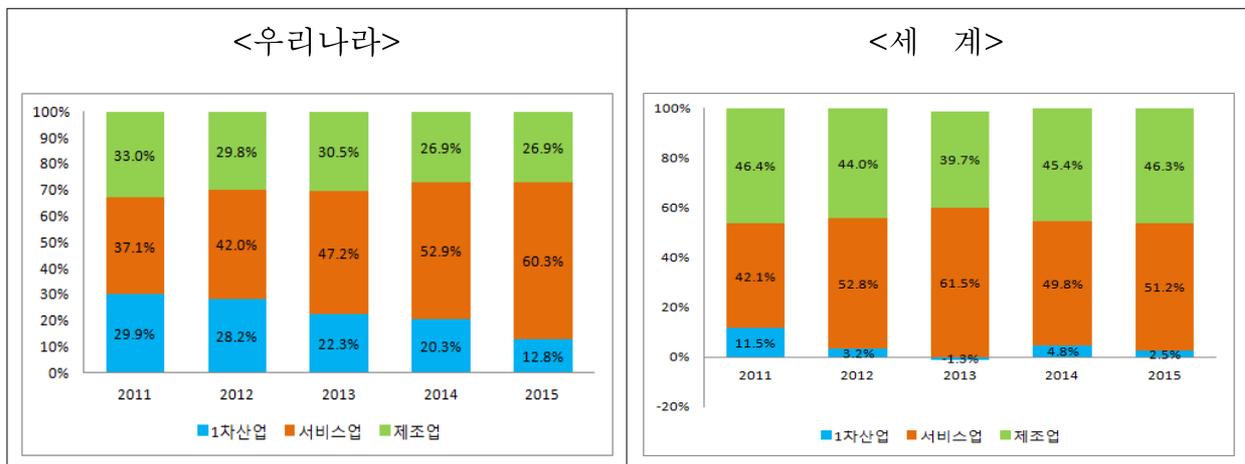
11) 우리나라의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수출입은행이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투자액은 유출액, 투자대상국은 최종투자대상국을 기준으로 작성함.

우리나라와 세계의 상위 5개 투자대상국 투자비중 비교



- (업종별 구성) '15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각각 26.9%, 60.3%, 12.8%로, 최근 5년간 서비스업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및 1차 산업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업, 금융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전체 기준으로는 금융업, 전기·가스·수도업, 사업지원서비스업(컨설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전체 기준으로는 의약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업종별 투자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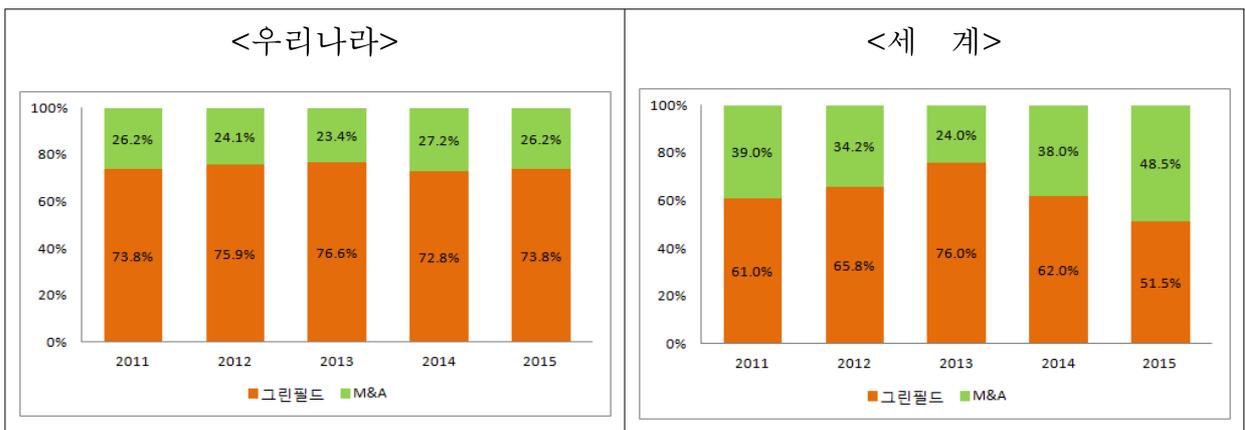
- (투자형태별 구성) '15년 우리나라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년(196억 달러) 대비 2.3% 증가한 201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 중 73.8%의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와 세계 투자형태별 투자금액 비교



- M&A형 투자의 경우, 전년(74억 달러) 대비 29% 감소한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M&A형 투자비중은 전체 투자금액의 26.2%로 세계 평균(48.5%)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세계 투자형태별 투자비중 비교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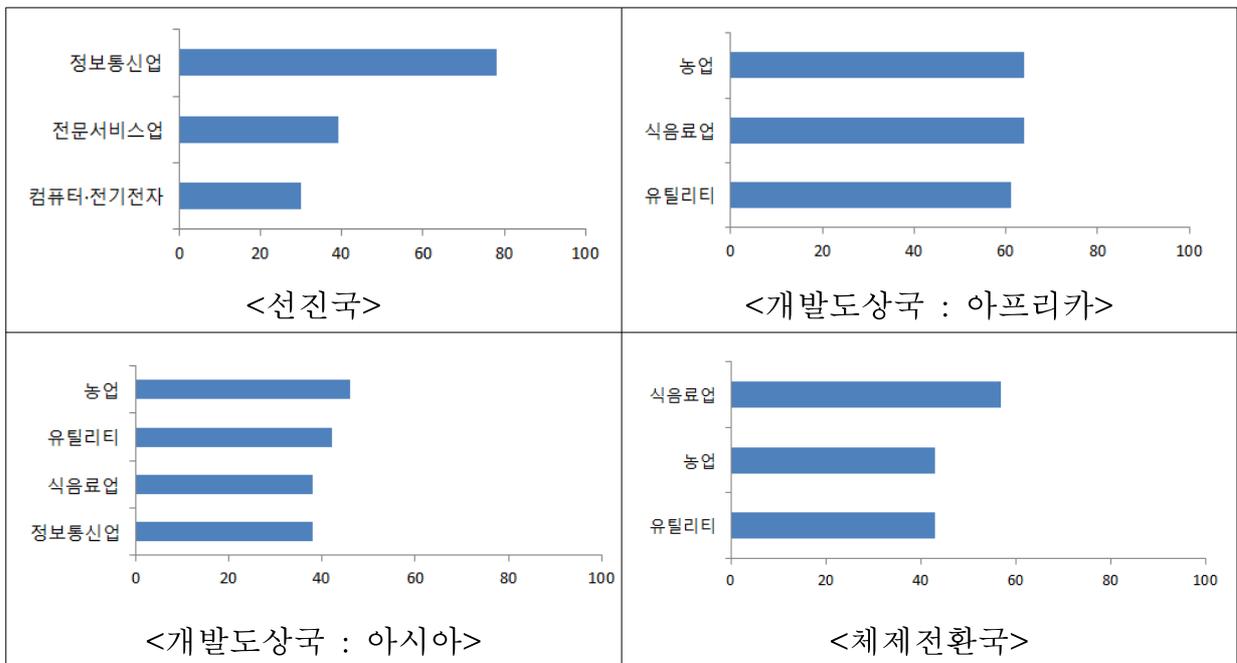
- (총투자규모) '16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6」에 따르면, '16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유입액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0~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17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16년에는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경기침체 지속,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신흥국의 부채 부담, 조세회피(Tax Inversion) 목적의 자본이동 규제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 감소 전망
 - (선진국)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및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M&A 투자 감소 가능성 등으로 '16년에 투자 유입액은 '15년 대비 약 10% 내외로 감소하여 8,300~8,8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개발도상국) '16년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 앞 투자유입액은 각각 15%,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프리카는 약 6%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및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16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등으로의 투자는 '16년에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남미) 경기 불황 지속 및 내수 시장 위축 등으로 '16년 투자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1,400~1,600억 달러로 예상
 - (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필드 프로젝트 투자 증가, 외국인 투자자 앞 시장 개방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16년 투자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550~6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

12) 「세계투자리포트 2016」에서는 「UNCTAD's Business Survey」 결과 및 UNCTAD 자체모형 예측 수치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 전망(유입액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전망 부분도 「세계투자리포트 2016」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체제전환국) 지역분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16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70~4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러시아 경제의 회복 여부가 향후 체제전환국의 투자 유입액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및 컴퓨터·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투자유망업종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서는 농업, 식음료업, 사회인프라 관련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

지역별 투자유망산업 전망

(%)



- (국가별)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우려 등으로 향후 3년간은 선진국 앞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투자유출국)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전망 되었으며 상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모두 선진국임.

- (주요 투자유입국) '15년에 이어 미국, 중국, 인도가 여전히 3대 유망 투자유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투자유출국 전망과 달리 10대 유망 투자유입국에 6개의 개발도상국이 포함됨.

주요 투자유출국 및 투자유입국 전망('16~'18년)

구 분	투자유출국	투자유입국
1위	중국 (2)	미국 (2)
2위	미국 (1)	중국 (1)
3위	영국 (2)	인도 (3)
4위	독일 (4)	영국 (4)
5위	프랑스 (6)	독일 (7)
6위	인도 (7)	일본 (10)
7위	네덜란드 (10)	브라질 (4)
8위	일본 (5)	멕시코 (8)
9위	캐나다 (13)	인도네시아(14)
10위	이탈리아 (10)	말레이시아 (14)

* 괄호안은 전년도 순위

V

시사점

□ 현지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M&A 방식의 투자 확대 고려**

- 과거 해외직접투자가 저임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생산·가공기지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선진기술 확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인력 및 기술 확보**를 위한 M&A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우리기업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영업기반 확충**에 효과적인 M&A 방식의 투자를 적극 고려 필요

※ 최근 **중국기업**의 경우 자국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자금력을 앞세워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의 유명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인수대상이 주로 자원이나 원자재 분야 기업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기술력과 브랜드파워가 있는 IT, 문화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1 ~ '15년) 한·중·일의 해외 M&A 규모(블룸버그 자료)
· (한국) 389억 달러, (중국) 2,759억 달러, (일본) 3,020억 달러

□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개도국 중심의 투자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에 대한 투자확대 등 **투자 지역·업종 다변화 도모**

- 세계적 저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개도국 중심의 투자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확보,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선진국 앞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지역 및 업종을 다변화할 필요

- UNCTAD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 컴퓨터·전기전자,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유망업종 위주로 투자전략 재편 및 투자 확대 추진**

-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고용창출 및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필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ICT, 보건의료, 금융, 문화콘텐츠 등)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선진기술·경영방식 습득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도모
-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제 지원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제도적 투자환경 지속 개선 필요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미	국	307,927	1	316,549	1	299,969	1
일	본	135,749	2	113,595	4	128,654	2
중	국	107,844	3	123,120	3	127,560	3
네	덜	69,974	7	55,966	8	113,429	4
아	일	29,026	13	43,133	10	101,616	5
독	일	40,362	9	106,246	5	94,313	6
버진아일랜드(영국령)		103,290	4	81,192	6	76,169	7
스	위	38,557	11	△3,327	184	70,277	8
캐	나	54,879	8	55,688	9	67,182	9
홍	콩	81,025	5	125,109	2	55,143	10
룩	셈	25,283	15	23,437	16	39,371	11
벨	기	18,161	18	5,010	34	38,547	12
싱	가	39,592	10	39,131	12	35,485	13
프	랑	24,997	17	42,869	11	35,069	14
스	페	13,814	23	35,304	13	34,586	15
대	한	28,360	14	28,039	14	27,640	16
이	탈	25,134	16	26,539	15	27,607	17
러	시	70,685	6	64,203	7	26,558	18
스	웨	30,071	12	8,564	24	23,717	19
노	르	7,792	30	18,254	17	19,426	20
칠	레	8,388	28	11,803	20	15,513	21
대	만	14,285	21	12,711	19	14,773	22
덴	마	7,176	32	8,410	25	13,214	23
오	스	15,568	20	5,065	33	12,399	24
말	레	14,107	22	16,369	18	9,899	25
이	스	5,502	36	3,667	39	9,743	26
키	프	△10,971	185	1,265	53	9,718	27
아	랍	8,828	27	9,019	22	9,264	28
케	이	11,029	26	8,738	23	8,273	29
포	르	△2,043	183	4,108	37	8,167	30

<참고자료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11,501	1	106,614	3	379,894	1
홍	콩	74,546	4	114,055	2	174,892	2
중	국	123,911	2	128,500	1	135,610	3
아 일 랜 드		44,899	13	31,134	12	100,542	4
네 델 란 드		51,375	10	52,198	8	72,649	5
스 위 스		646	110	6,635	40	68,838	6
싱 가 포 르		66,067	6	68,496	5	65,262	7
브 라 질		53,060	9	73,086	4	64,648	8
버진아일랜드(영국령)		112,128	3	49,986	9	51,606	9
캐 나 다		71,753	5	58,506	6	48,643	10
인 도		28,199	16	34,582	11	44,208	11
프 랑 스		42,892	14	15,191	22	42,883	12
영 국		47,592	11	52,449	7	39,533	13
독 일		11,671	30	880	101	31,719	14
벨 기 에		13,682	24	-8,703	217	31,029	15
멕 시 코		45,855	12	25,675	14	30,285	16
룩셈부르크		15,371	23	12,073	25	24,596	17
호 주		56,977	7	39,615	10	22,264	18
이탈리아		24,273	17	23,223	16	20,279	19
칠 레		17,878	20	21,231	19	20,176	20
케이만군도		18,176	19	23,731	15	18,987	21
터 키		12,284	27	12,134	24	16,508	22
인도네시아		18,817	18	21,866	18	15,508	23
스웨덴		4,858	42	3,561	53	12,579	24
콜롬비아		16,209	22	16,325	21	12,108	25
베트남		8,900	35	9,200	31	11,800	26
아르헨티나		9,822	32	5,065	44	11,655	27
이스라엘		12,449	26	6,739	39	11,566	28
말레이시아		12,115	29	10,877	27	11,121	29
아랍에미리트		9,491	33	10,823	28	10,976	30